노컷뉴스

창원도시재생지원센터,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업무협약

2018-06-08 08:25 경남CBS 송봉준 기자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 기대"

(사진=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8일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복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면서 쇠퇴한 대상지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자활자립,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 등 주민조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충무, 구암, 소계, 돌산지구)에 지역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복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마산희망지역자활센터 최미혜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매칭, 사회서비스와 장기요양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창원시 도시재생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손재현 사무국장은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인 충무, 구암, 소계, 돌산지구는 물론이고 창원시 전역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981969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